

# 간간한 감사, 기업 초긴장... 비적정의견에 시장 요동

## 회계사 전성시대 빛과 그림자

### (3) 회계감사 부서의 재발견

선발인원 850명→1000명 확대  
경력회계사 영입 기업경쟁 치열  
감사시즌엔 주 80시간 근무도

전대반던 회계감사 부서가 회계법인의 메인으로 부상했다. 신(新) 외감법 도입으로 감사인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는 회계감사 부서의 '그림자'다.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을 85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다. 신 외감법 도입에 따라 회계사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측에 연구용역을 맡겨 정하기로 했다.

충원되는 회계사 대다수는 감사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형회계법인은 신입 회계사 채용 시 전체 30% 정도만을 세무자문본부와 재무자문본부로 채용하고, 나머지를 모두

### 〈2018회계연도 상장사 감사시간 감사인력 현황〉

| 사기총액 | 코스피 종목   | 감사시간   | 감사인력 | 코스닥 종목   | 감사시간  | 감사인력 |
|------|----------|--------|------|----------|-------|------|
| 1    | 삼성전자     | 50401  | 126  | 셀트리온헬스케어 | 5811  | 26   |
| 2    | SK하이닉스   | 11967  | 44   | CJ ENM   | 10463 | 30   |
| 3    | LG화학     | 14918  | 71   | 신라젠      | 1060  | 27   |
| 4    | 현대차      | 26534  | 70   | 바이로메드    | 701   | 5    |
| 5    | 셀트리온     | 3426   | 38   | 포스코케미칼   | 3115  | 18   |
| 6    | LG생활건강   | 9595   | 45   | 메디톡스     | 1094  | 23   |
| 7    | POSCO    | 21732  | 50   | 에이치엘비    | 2165  | 22   |
| 8    | 삼성바이오로직스 | 1938   | 22   | 스트리모드레곤  | 1667  | 27   |
| 9    | NAVER    | 14760  | 54   | 필어비스     | 1990  | 22   |
| 10   | SK텔레콤    | 15888  | 46   | 코오롱티슈진   | 미공시   |      |
| 11   | 삼성물산     | 23112  | 98   | 셀트리온제약   | 1769  | 6    |
| 12   | 현대모비스    | 8125   | 37   | SK머티리얼즈  | 1964  | 21   |
| 13   | 신한지주     | 8470   | 37   | 제넥신      | 686   | 5    |
| 14   | 한국전력     | 20264  | 38   | 휴젤       | 3008  | 21   |
| 15   | SK       | 17102  | 57   | 파라다이스    | 2979  | 22   |
| 16   | 삼성에스디에스  | 9995   | 40   | 에스에프에이   | 2510  | 16   |
| 17   | KB금융     | 9820   | 38   | 에이비엘바이오  | 551   | 20   |
| 18   | 삼성생명     | 12145  | 49   | 컴투스      | 1442  | 19   |
| 19   | SK이노베이션  | 8367   | 36   | 코미팜      | 784   | 5    |
| 20   | 삼성SDI    | 7364   | 37   | 아난티      | 1244  | 5    |
| 합계   |          | 295923 | 1033 | 합계       | 45003 | 340  |

감사업무로 배정한다. 지난해 삼정회계법인 기준 360여명 중 약 250명 안팎의 신입 회계사가 감사본부로 배정됐다.

### ◆ 높아지는 감사인 몸값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감사 본부가 만능적 인력부족을 겪고 있어서다. 특히 신입 회계사가 감사본부로 배치돼도 1년 후 트랜스퍼(본부 이동)를

통해 다른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감사업무는 돈이 안 될뿐더러 업무 부담도 과중하기 때문이다.

4대 회계법인 소속 A회계사는 "감사 환경 자체가 안 좋고,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해 본인의 커리어를 다른 쪽으로 쌓길 원하는 회계사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감사인에 대한 대우가 바뀌고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파트너 회계사의 영업 압박도 줄었고, 감사 경험이 있는 회계사를 사외이사로 모시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몸값이 치솟고 있다.

한 회계법인 B회계사는 "감사 보수 현실화에 따라 감사인의 연봉도 상승하고 있고, 감사 경험이 이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감사업무를 선호하는 회계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 ◆ 과중한 업무는 여전

일정한 경력을 갖춘 회계사들이 감사 본부로 돌아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감사 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사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한 신 외감법의 도입 취지에도 맞다.

한 예로 코스닥 상장사인 A기업의 경우 전체 외부감사인 중 80%가 신입 회계사로 채워졌다. 경력이 있는 회계사들이 감사본부로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것은 '과중한 업무' 탓이다.

메트로신문이 코스피 사기총액 상위 20개 상장사의 2018회계연도 감사시간을 분석한 결과 총 1033명의 감사인이 29만5923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 당 286시간(중복 포함)을 할애했다는 이야기다.

기업 감사인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회계사의 업무 부담은 과도했다. 신 외감법 도입으로 감사업무가 간간해지면서 이들의 감사시간은 모두 늘어났는데 LG화학의 경우 파트너 회계사는 총 493시간을 감사에 썼다. 일반적으로 감사 업무가 이른바 '시즌(1~2월)'에 집중된다고 봤을 때 해당 기간 주 52시간 이상 일했을 가능성이 크다.

4대 회계법인에서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C회계사는 "감사시즌엔 다음달 근무시간까지 당겨서 쓰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감사를 위해 거의 한 본부가 투입됐는데도 벽차는 말이 들리더라"고 귀띔했다.

실제 회계사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회계사의 절반 이상은 감사 시즌 1주에 8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중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한 입장은 금융당국과 회계사 단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더 많은 회계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계사 단체는 회계사의 서비스 기간이 40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증원보다 휴업 회계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증권 다이제스트



### 한화투자증권

#### 홍콩·중국 주식 직접거래

한화투자증권은 홍콩·중국(선·후강통)주식 직접거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세계적인 리서치 전문 기업인 '모닝스타'의 '스타 레이팅(Star Rating)'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스타 레이팅은 모닝스타의 위험조정수익률에 의해 주식종목의 평가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고 최고점인 5점에서 최저 1점까지 부여하고 있다. 홍콩과 중국 주식 거래는 당사 HTS(Home Trading System)와 MTS(Mobile Trading System)에서 해외주식 서비스 신청 후 가능하다. /김유진 기자

### KB증권

#### 공기청정기 증정 이벤트

KB증권은 봄을 맞아 '미세먼지와 비대면 하자! 공기청정기 100대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KB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KB증권은 이벤트 기간 동안 KB증권의 비대면 계좌개설 전용 서비스인 '스타트 에이블(Start able)' 앱을 통해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위탁 최초 신규 고객 또는 장기 미거래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하여 공기청정기를 1대씩 증정한다. /손업지 기자

## KB자산운용, 판매·운용보수 없는 펀드 출시

'KB장기토탈리턴성과보수펀드'  
절대 저평가 기업 등에 선행 투자  
3년 수익률 20% 목표 운용키로

KB자산운용은 8일 판매·운용보수 없이 성과에 연동해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KB장기토탈리턴성과보수펀드'를 출시했다.

해당 펀드는 ▲절대 저평가 기업 ▲고배당 기업 ▲장기성장성 미반영 기업 등에 선행 투자한다.

KB자산운용 고유의 'KB코스피 지수추정모델'과 액티브운용본부 회의를 통해 지수의 방향을 판단하고, 시황에 따라 주식 순환입 비중을 0~100% 사이로 조절한다.

배당수익을 재투자하고 종목선정과



자산배분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는 토탈리턴 전략을 통해 3년 수익률 20% 내외를 목표로 운용될 예정이다.

조재민 KB자산운용 대표는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의 부활과 장기투자 문화 형성을 위해 기본 운용보수를 받지 않는다"며 "전문사모펀드에 비해 보수가 저렴하고 적은 금액으로도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공모펀드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펀드의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는 없으며 환매시 수익률이 8%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수익금액의 20%가 성과보수로 부과된다. 또 운용성과에 따른 성과보수만을 수취함으로써 펀드가 손실이 나거나 운용수익이 8%에 미달하는 경우 운용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

납입금액의 1.2%를 선취하는 A형(연보수 0.045%)과 0.6%를 선취하는 A-E형(온라인 전용, 연보수 0.045%),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1년 3%, 2년 2%, 3년 1%)가 징구된다. KB국민은행, KB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손업지 기자



8일 오전 여의도 본사 사옥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출근 직원들에게 'NH Smart Work 333' 캠페인 안내자료를 건네고 있다. /NH투자증권

### NH투자증권

####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 스마트워크 333 캠페인

NH투자증권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업무 문화 정착을 위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에서 'NH스마트워크(Smart Work) 333' 캠페인을 진행했다.

NH Smart Work 333 캠페인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맞춰 변화하는 근로 환경 전반에 대해 직원이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부 캠페인이다. '333'은 ▲근로시간 준수 ▲업무 효율화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통해 개인은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시키고, 조직은 이를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의미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정영채 사장을 비롯해 경영지원총괄 소속 임직원들이 참여해 회사 로비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리플렛과 포스터 등 캠페인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NH투자증권은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정규 근무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로 조정,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한 바 있다.

## 대우건설, 자체개발 '드론관제시스템'으로 레이싱 중계

대우건설은 자체 개발 중인 건설산업용 '드론관제시스템'을 활용해 드론 레이싱 대회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는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로보랜드 내 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국내 드론개발사인 아스트로엑스가 주최하고 국내외 관련 회사 약 22개사가 후원해 개최됐다. 선수는 국내 60명, 해외 10명이 참가했다.

드론레이싱은 축구장 크기의 경기장에서 각종 깃발과 게이트 등의 장애물을 시속 60~130km로 비행하는 경기다.



지난 6일 대우건설이 드론관제시스템으로 중계한 드론 레이싱 대회 온라인 중계 화면 /대우건설

이번 대회에서는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의 송근목 과장과 류남 사원이 해설자와 아나운서로 나섰다. 송근목 과장은 과거 국내외 각종 드론레이싱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경력이 있으며 류남 사원은 회사의 스마트건설기술 기

획, 홍보 분야에 근무하면서 드론과 인연을 맺어 참여하게 됐다.

또 대우건설은 이번 대회에서 '대우건설 드론 관제시스템(DW-CDS)' 중 일부인 드론 영상관제부분을 지원해 별도의 지상카메라와 통합해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 드론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건설현장에도 드론을 이용한 정기적인 항공영상 촬영, 실시간 공정 및 안전 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에는 대우건설의 전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손업지 기자